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

### 익산시,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간담회 열어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장익산군산축협조합장, 축산단체대표,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외 관련공무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과와 급후 추진계획,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각 관계자들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449건이며 204건에 대하여 현황축사를 마쳤고 그 중 60건(완료 40, 접수 중 20)을 완료한 상태로 144건(설계 중 60, 현장조사 84)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 구성, 적법화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상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협의체 협약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 가축사육제한거리 배제 등 많은 시책과 제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결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또는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 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사에 배분된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는 인허가 해당부서에 우선 접수를 독려하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건축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매월 인허가 결과에 대한 해당부서 보완 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등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장익산군산축협조합장, 축산단체대표,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외 관련공무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군산시, 전국 최우수등급 선정 영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과 군산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여성가족부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전국 397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평가에서 청소년들이

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의 문화행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의 수련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원영 군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시설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대경글로벌로지텍,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익산시 금강동에 소재한 대경글로벌로지텍(주)(대표 유재훈)은 지난 23일 연탄연시를 앞두고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연탄을 지원했다.

대경글로벌로지텍(주)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 보탬을 주기 위해 매년 직원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이날 대경글로벌로지텍(주)은 관내 독거노인, 소외계층 4세대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경로당 1곳에 쌀·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임직원 30여명이 직접 연탄과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연탄을 받은 김(87) 어르신은 "점점 날씨가 추워져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재훈 대경글로벌로지텍 대표는 "작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연탄을 지원할 수 있어 뿌듯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안전한 도시기반조성 성과 돋보여

### 군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군산시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는 연 초에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와 지난 11월 진행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각각 기관표창을 받으며 올해 각종 안전 분야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취약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신종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토록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우수 기관표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군산시가 2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매뉴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훈련을 진행한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수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대응 시책 추진,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진대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청사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건물 또한 설계사부터 내진설계를 유도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수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대응 시책 추진,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진대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청사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건물 또한 설계사부터 내진설계를 유도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평안한 장례문화 선도 나서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설 사용자 의견 수렴

군산시가 장사시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8일 공포하고 29일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종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자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군산시민 장기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액 지원하자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시민 중심의 선진장례 문화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기간에 맞춰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의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공설묘지

및 추모관 사용자격을 1년 이상 군산시 주소소를 두고 거주한 자 및 30일 이상 주소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사용자격을 강화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산골장, 추모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품격 있는 장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장사시 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운영상 표출되는 개선 사항을 즉시 보완해 이롭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품격 있는 부영 강화유리형으로 부영을 같이 보실 수 있는 300여기의 부부나눔을 설치해 유족들의 고인에 대한 효 실천을 도울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군산대, 동아시아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 개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최홍수 교수, 생물학과)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2017년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주관했다.

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농생명 정보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분야별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연구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전문가 1인, 일본 전문가 2인, 중국 전문가 3인 및 국내 전문가 2인 등이 초청되었고, 국내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안파 유전체 및 육종 전문가 마이클 헤이비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 작물유전체 분야로 서울대학교 강병철 교수, 중국 농업

과학원 유지작물연구소의 정인 유 박사, 일본 카즈사 DNA 연구소 소장 사치코 이소베 박사가 강연했다.

두번째 세션은 축산유전체 분야로 한양대학교 남진우 교수 및 중국 국제 축산연구소 지한린 한 박사가 강연했다.

세번째 세션은 작물유전체 분야로 중국 난징농업대학교 수메이 첸 교수 및 일본 카즈사 DNA 연구소 에이치 아미모토 박사가 강연했다.

최홍수 군산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센터장은 "동아시아 농생명 유전체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공유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농생명 유전자원 유전체 분석에 대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간 협력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